

5/13/18

설교 제목: 너희는 내 백성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1 장 1- 2 장 1 절

- (호 1: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 (호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절관주** 사 50:1
- (호 1: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 (호 1: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 (호 1:5)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 (호 1: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절관주** 사 27:11
- (호 1: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시 33:16
- (호 1: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절관주** 호 1:3
- (호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호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 (호 1: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절관주** 시 22:27, 롬 11:15

(호 2: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서는 BC 8 세기에 활동한 북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 기록된 소 예언서로 12 권의 소 예언서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5 권의 대 예언서와 12 권의 소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 예언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소 예언서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포로시대,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는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한 것이므로 소 예언서라고 해서 중요성이 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 세(BC793-753)왕 말기부터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BC722 년)전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 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절심함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시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반응은 잘나가고 있는데 재수없는 소리한다며 냉소적이었겠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특별히 부를 많이 축적하여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신들도 적당하게 혼합하여 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내 번성을 이루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들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 풀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다는 능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능하지 못하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농사짓는 법을 배우면서 함께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도 배워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를 지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음란 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늘 신이자 남자 신인 바알과 땅 신이자 여자 신인 아세라가 우주적인 성 행위를 해야 농사가 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성한 열매와 소산을 내는 것을 신들의 우주적인 성 행위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주적인 성행위를 위해서는 인간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성적인 자극과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 사제들을 성장이라는 성전 창녀로 세웠습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과 같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합한 신을 섬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살 때는 세상 일에 유능한 세상의 신을 섬기며 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며 그들을 좇아 사는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사이코 드라마로 보여 주길 원하셨습니다.

먼저 호세아를 사이코 드라마에 출연시켜 보여 주고 그 드라마에 대해서 같이 논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알게해 주어 치료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현 시대에 정신 질환 치료로 사용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8 에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패역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빠져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 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할 목적으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심판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맺은 연약을 파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복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호 1: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 1: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 1: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 세 왕이 북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북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이고 지금 북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건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남 유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남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구속사적 입장에서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이란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당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아주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깨끗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 21:13)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레 21:14)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레 21:15)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행위 계시로 직접 보여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아내는 하나님을 떠난 북 이스라엘을, 음란한 자식들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호 1: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 1:5)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흠어 버리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활을 꺾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나라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로보암 2 세 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 BC 722 년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두 번째로 딸을 낳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 1: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정 접두어 ‘로’가 붙음으로 반대어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 북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음란과 배신으로 갚은 북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호세아 이후 북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700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남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 1: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열왕기하 19 장에 보면 남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공격에 의하여 남 유다가 완전히 포위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앗수르 군사를 모조리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하 19:35)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향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세 번째로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셨습니다.

(호 1: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뎠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앞에 부정 접두어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심은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희망을 보여 주십니다.

(호 1: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 1: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호 2: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10 지파가 다 흩어져 버리지만 일부는 유다에 붙어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들이 포함된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무수한 자손의 축복과 관계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조건없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단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역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함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했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다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마음과 깊은 사랑을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